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④	5	③
6	④	7	⑤	8	②	9	⑤	10	③
11	①	12	①	13	⑤	14	③	15	③
16	①	17	①	18	②	19	③	20	②
21	①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①	28	①	29	④	30	④
31	⑤	32	⑤	33	③	34	③	35	④
36	②	37	⑤	38	②	39	②	40	④
41	⑤	42	③	43	④	44	①	45	③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의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발표에서 발표 내용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개인적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 중에 문화재를 발견하는 예를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매장 문화재’의 개념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화면2’는 전문 기관의 발굴 조사 장면을 제시한 것 이므로,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화면1’은 화단 장식물 파편을 발견한 것이므로 발굴한 문화재를 소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면3’은 일상생활, 여가 생활 중의 문화재 발견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고대와 근대의 문화재를 대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면4’는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의 절차들을 담고 있으므로 감정 평가의 세부 단계들을 정리하여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면5’는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핵심 취지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비석이 어떤 절차를 밟아 문화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것은 학생이 듣기 전에 지나고 있었던 의문에 해당한다. ‘알게 되어 유익했어’를 통해 이것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할아버지 친구분이 비석을 발견한 상황을 전해 들은 것이므로 직접 당사자가 되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학생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이 발표 목적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수종의 매장 문화재 사례를 다루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가)에서 설문 항목을 안내하고 있지만 설문 참여 시 주의할 점을 덧붙인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예상 독자를 명시하고 글을 쓴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사전 협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이후 진행될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독자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풀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1문단에 제시된 ‘사용자 중심의 공간’이라는 학교 공간 개선의 취지가 ‘사용자인 우리의 편의를 두루 고려한’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 집 같은’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맥락에 맞게 마무리하였다.

[오답풀이] ① 개선의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유적 표현은 포함되어 있다.

② 글의 맥락에 맞게 마무리하지 않았다.

④ 개선의 취지와 비유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비유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참여자의 역할 파악하기

‘선생님’의 네 번째 발화에서 설문 참고 자료를 잘 파악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지만, 학생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는 않다.

[오답풀이] ① 선생님의 첫 번째 발화에서 (가)에서 언급한 설문 조사 기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② 선생님의 두 번째 발화에서 (가)에서 언급한 첫 번째 설문 항목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의 결과를 모아 온 학생들의 발화를 정리하고 있다.

③ 선생님의 세 번째 발화에서 (가)에서 언급한 두 번째 설문 항목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⑤ 선생님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가)에서 언급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다음 회의 참여자임을 밝히며 다음 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7.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에서 ‘학생 1’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학생 2’의 발언 내용과는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

②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③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의 일부를 긍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과는 다르게 조사한 내용을 말하고 그에 동의하고 있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보기>의 ㄴ에서 말하는 나무의사의 종인원 수는 글 전체에 드러나 있지 않다. ㄷ은 자격증의 공신력이 높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과거와 비교해서 높아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다)는 생활권 수목 방제를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드러내는 신문 기사이다. 이 부작용을 나무의사에 대한 수요 증가의 근거로 볼 수 없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의도 파악하기

<보기>의 ‘자연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시대’라는 부분에서 나무의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알 수 있고, ‘나무와 숲을 살리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나무의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보조사 이해하기

⑦에서의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도’는 ‘역시, 또한’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마저도’는 ‘보조사+보조사’로 결합된 형태이다.

12. [출제의도] 보조사와 의존 명사 이해하기

⑧의 ‘만큼’은 ‘너’라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고 있으므로 보조사이고, ⑩의 ‘만큼’은 ‘먹을’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의존 명사이다.

[오답풀이] ② ⑧은 의존 명사, ⑩은 보조사이다.

③ ⑩은 의존 명사, ⑧은 어미이다.

④ ⑧은 보조사, ⑩은 어미이다.

⑤ ⑧은 어미, ⑩은 의존 명사이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불놀이’는 ①이 적용되어 [불로리]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신라’는 ⑦이 적용되어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② ‘칼날’은 ⑤이 적용되어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③ ‘생산량’은 ⑨이 적용되어 ‘ㄹ’이 ‘ㄴ’ 뒤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④ ‘물난리’는 ⑦과 ⑨이 모두 적용되어 ‘ㄴ’이 ‘ㄹ’의 앞과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14. [출제의도] 문장 유형 이해하기

종결 어미 ‘-어라’는 동일한 형태가 다른 문장 유형을 실현한다. ‘늦을 것 같으니까 어서 셧어라.’는 종결 어미 ‘-어라’로 인해 명령문이 실현되고, ‘그 사람을 뽑지도 만나고 싶어라.’는 종결 어미 ‘-어라’로 인해 감탄문이 실현된다.

[오답풀이] ① 종결 어미 ‘-니’로 인해 의문문이 실현된다.

② 종결 어미 ‘-ㄹ게’로 인해 평서문이 실현된다.

③ 종결 어미 ‘-구나’로 인해 감탄문이 실현된다.

④ 종결 어미 ‘-ㅂ시다’로 인해 청유문이 실현된다.

15.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무딘 칼을 날카롭게 같다.’는 ‘갈다²-[ㄹ]’의 용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갈다¹’, ‘갈다²’, ‘갈다³’은 서로 글자의 음이 같으나 뜻이 다르므로 동음이의어이다.

② ‘갈다³’은 의미 ①과 ②를 가진 다의어이다.

④ ‘갈다¹’은 ‘…을 …으로’라는 문형 정보를 통해 부사어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갈다¹’, ‘갈다²’, ‘갈다³’은 ‘가니[가니]’라는 활용 정보를 통해 ‘갈-’에 ‘-니’가 결합할 때 표기와 발음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20] 독서(인문)

<출전> 현실요법(제구성)

개관 : 현실요법에서는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 욕구인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의 욕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마다 욕구들의 강도가 달라 다양한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양상에 따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강한 욕구와 강한 욕구 사이의 갈등에서는 타협과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강한 욕구와 약한 욕구 사이의 갈등에서는 약한 것을 복돋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현 실요법에서는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고 내 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현실요법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 욕구의 개념을 밝히고 현실요법의 적용 사례를 들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론이 지닌 한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다른 관점을 지닌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이론의 주요 개념인 욕구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으나, 추가할 새로운 유형을 소개하지 않았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약한 욕구는 강한 욕구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돋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다섯 가지 욕구들의 강도는 개인마다 달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현실요법에서는 내담자를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④ 1문단에서 인간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현실요법은 기본 욕구들을 실현 가능 한 수준으로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사례와 연결지어 이해하기

⑦은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의 갈등 해결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 타인의 부탁에 불편해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힘의 욕구가 높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③ 혼자 홀찍 떠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유의 욕구가 낮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④ 타인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것은 생존의 욕구가 낮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사랑의 욕구가 낮을 때 예,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즐거움의 욕구가 낮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는 자유의 욕구, (나)는 힘의 욕구, (다)는 사랑의 욕구, (라)는 즐거움의 욕구, (마)는 생존의 욕구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힘의 욕구 강도가 A는 4, B는 1이므로, A는 B보다 힘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즐거움의 욕구 강도는 1, 힘의 욕구 강도는 4로, 즐거움의 욕구보다 힘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B는 힘의 욕구 강도가 1, 생존의 욕구 강도가 5로, 힘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보다 더 약하다.
 ④ A와 B 모두 자유의 욕구 강도는 5로,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⑤ A는 사랑의 욕구 강도가 5로 즐거움의 욕구 강도 1보다 강하지만, B는 즐거움의 욕구 강도가 3으로 사랑의 욕구 강도 1보다 강하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⑥‘도달’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로 정한 곳이나 어떤 수준에 이르러 다다름.’이고,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은 ‘성장’의 의미이다.

[21~25] 독서(과학)

<출전> 소용돌이의 종류와 특성(재구성)

개관: 이 글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용돌이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유효 배수구를 빠져나가는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주속도가 빠르다. 킥의 물을 휙젓거나 킥 자체를 회전시켜 만든 강제 소용돌이는 수면 어디에서나 각속도가 일정하지만, 원주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 둘이 합쳐진 행킨의 조합 소용돌이는 가운데에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심에서 원주속도가 최소가 되고 강제 소용돌이가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원주속도가 최대가 된다.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원리를 활용해 만든 것이 분체 분리기이고, 그 예로 쓰레기 필터가 없는 사이클론식 청소기가 있다.

21.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모두 자유 소용돌이 아니다. 지면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의 소용돌이는 태풍으로, 이는 행킨의 조합 소용돌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서 배수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원주속도가 빨라지지만,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③ 2문단에서 강제 소용돌이는 행크의 회전과 같이 중심은 원주속도가 0이라고 했다.

④ 4문단에 분체 분리기, 사이클론 분리기의 예로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들고 있다. 이것은 자유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내통)로 바꿀 수 있는 기계 장치이다.

⑤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⑦은 물 입자가 킥 가장자리로 쏠려 킥 중앙의 물이 줄어들어 압력이 낮아지면서 만들어진다. 반대로 가장자리로 쏠린 물의 양은 많아져 압력을 카지고 수면은 높아진다.

[오답풀이] ① 원심력이 커지면 압력도 커져 비례 관계를 보인다.

② 킥 중앙 부분에는 물 입자의 양이 적고, 가장자리에 많다.

③ 킥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물의 양이 많아 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⑤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면 중심은 더 오목해지고 가장자리의 수면은 더 높아진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각속도가 똑같아지고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하면 수면의 어느 지점에서나 각속도는 같다. 따라서 회전 중심에서 가깝든 멀든 각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행크는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하는 것과 같으므로 물 표면의 각속도는 일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②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각속도가 변하는 비율이 수시로 달라지면 각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는 의미이므로, 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강제 소용돌이는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속도가 빨라진다. ②으로 수면 어느 지점에서나 원주속도가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없다.

⑤ 강제 소용돌이의 원주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빨라지지만, 자유 소용돌이의 원주속도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진다. 그러므로 둘은 같은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3문단에서 조합 소용돌이의 예로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조합 소용돌이는 가운데가 강제 소용돌이, 주변이 자유 소용돌이다. 또 강제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원주속도가 최소가 되는데, 태풍의 눈은 ‘강제 소용돌이’의 중심에 해당한다(⑥). 두 소용돌이의 경계층은 강제 소용돌이가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원주속도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다’(⑥), <그림>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두 소용돌이가 교차하는 지점이다(⑥).

[오답풀이] ① 자유 소용돌이가 아니라 강제 소용돌이다.

② 반지름이 가장 큰 자유 소용돌이의 지점은 원주속도가 최소이고 바람이 약하다. 두 소용돌이의 경계층은 원주속도가 최대로 바람이 강하다.

③ 반지름이 가장 작은 자유 소용돌이의 지점은 원주속도가 최대이지만 태풍의 중심 부분은 강제 소용돌이에 해당한다. 또 강제 소용돌이가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 즉 경계층이 아니다.

④ 경계층은 바람이 강하다. 강제 소용돌이는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속도가 증가한다. 태풍에서 반지름이 커지면 태풍 주변부는 자유 소용돌이에 해당한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혼합물은 원통부 측면에 충돌하여 혼합물 상자(⑧)에 쌓인다고 했다. 내통(⑨)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혼합물의 원심력을 활용하기에 원심 분리기라고 한다고 했다.

② ⑧, ⑨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반지름이 작고 중심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속도가 나타난다. ⑧보다 반지름이 작아지는 ⑨에서 원주속도가 더 빠른다.

④ ⑧에는 강제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강제 소용돌이는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속도는 증가하므로 원주속도가 빨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⑧, ⑨ 벽면에 돌조각이 충돌한다면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26~28] 문학(현대소설)

<출전> 윤후명, 「하얀 배」

개관: 이 작품은 고려인의 삶을 통해 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편 소설이다. ‘나’는 취재 차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모국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고려인 소년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류다’를 만나길 희망 한다. 현지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 이식률 호수에서 류다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평범한 인사말에서 하얀 배를 떠올린다. ‘하얀 배’는 이식률 호수에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이자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이식률 호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것이 아니라 류다를 만나기도 원했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어렵다. ⑧은 류다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미친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식률 호수의 하얀 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되뇌며 흥미를 보이고 있다.

② 이식률 호수에 가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③ 이식률 호수에 가게 된 기대감과 설렘을 표현하

고 있다.

⑤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는 류다를 만난 놀라움에 “아, 안녕하십니까.”라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자신도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장면의 특성 분석하기

ⓐ는 류다를 만나 인사말을 듣고 받게 된 감동을 상상적 장면으로 표현한 것이고, ⓑ는 류다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만남의 의미를 생각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내면 상황이 드러난다.

28.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호수 밑에 옛날 도시’는 미하일이 이식률 호수와 관련해 들려준 이야기의 일부로, ‘나’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미하일이 고려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우리말을 배운 것은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왕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혁적’은 동포들이 겪었던 역사적 시련을 보여 주는 소제이다.

④ 류다의 ‘안녕하십니까’라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 말’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 내고 있다.

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는 류다와 소년을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류다는 ‘동방의 조상 나라’를 지향하고, 소년은 배를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다.

[29~32] 문학(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장국진전(張國振傳)」

개관: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장국진이라는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이다. 조선 시대에 쓰인 작품으로 군주에 대한 충의(忠義)를 주제로 한 군담소설이기도 하다. 명나라의 적국인 달마국이 여러 차례 쳐들어 와 전쟁을 하게 되고 장국진은 영웅적 활약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겪으나 여성 영웅인 이 부인과 더불어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결국 장국진이 직접 달마국을 정벌한다. 남성 영웅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상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29.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는 지속을 상상하게 하더라’,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뿐더러 터인가’,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하여야 한단 말인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작품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연속되는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한 인물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며, 사건의 전환에 예고되어 있지도 않다.

⑤ 특정 인물의 의양이 과장되어 있지 않으며, 인물이 회화화되어 있지 않다.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에서 이 부인이 위기 상황을 알고 직접 전장으로 향했기 때문에, 국진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국진은 황성에서의 병란을 알아차린 후 나라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한다.

② 국진은 도성 가까이에 온 적병 때문에 아무 성지로는 도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군의 진영으로 나간다.

③ 달마국 전장에서 국진이 신병을 얻어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이 부인이 낭장을 결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⑤ 용궁에서 용왕 내외는 천원 왕과 달마 왕이 천상 선관이었음을 밝히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면

앞날의 원(怨)이 될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A]에서 국진은 천자의 근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상대의 근심을 덜어내고 있다. [B]에서 천자는 국진의 능력을 믿고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전동’하여 ‘광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사람들은 적병들이다. 이를 이겨 내는 사람이 이 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전쟁 중에 국진이 무기를 들고 적군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통해 영웅적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투 중에 국진이 신병을 앓으며 적에게 포위당하여 명나라 군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장면에서 영웅이 처한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부인이 용왕에게서 국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약(仙藥)’을 얻은 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④ 용왕 부인이 선녀에게 당부하는 장면을 통해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33~37] 문학(고전시가 복합)

<출전> (가) 이황, 「설월죽(雪月竹)」 / (나) 권설, 「매화(梅花)」 / (다) 목성균, 「세한도(歲寒圖)」

개관: (가)는 눈 내린 밤 푸른 대나무를 보고 그것을 곧고 속이 깨끗한 선비의 인품에 빗대어 예찬한 한시이다. (나)는 한밤중 문득 매화가 편 것을 보고 임을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과 매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연시조이다. (다)는 인정이 없는 사공과 대치하며 뜻을 굽히지 않던 유년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현대 수필이다.

3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대나무, (나)는 매화를 통해 추위 속에서의 절개 등 내면적 가치를 발견한다. (다)는 글쓴이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일을 통해 아버지의 꽂꽂한 삶의 태도라는 내면적 가치를 발견한다.

[오답풀이] ① (가), (나)에서는 설의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② (다)의 ‘꺾친한 산기슭’과 ‘하얀 적설’에서 명암 대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의 ‘얼음같이’, (나)의 ‘나팔처럼’, ‘신음처럼’, ‘벼드나무 등치처럼’ 등에서 직유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 모두 풍자적 기법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34.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제1수>에서 화자가 매화를 임으로 착각했지만, <제2수>의 ‘옥골빙흔(매화)’을 임으로 착각하지는 않는다. 서려워하는 정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3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은 글쓴이가 사공의 의도를 추측한 내용이다. 아버지가 사공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선객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도첨의 달이 진 제’에서 ‘매화’를 발견한 시간이 드러나고, ‘첫 잡을 얼핏 깨어’에서 문득 잡에서 깨어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난다.

② ‘너’는 매화를 칭찬한 것으로, ‘너’를 임이 반길지 반기지 않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③ 아버지가 팔짱을 긴 채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밤을 동동거리

는 글쓴이의 행동과 대비된다.

⑤ ‘육적’과 ‘술’은 작은댁에 세배하려 가서 드릴 정성이 담긴 음식이다.

36.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갈대’는 겨울의 스산한 분위기를 더욱 부각하고 있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사공의 처사에 맞서려는 글쓴이의 내면을 표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노랑계’, ‘하얗게’ 등의 색 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겨울 강가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④ 아버지가 꿈쩍도 않고 서서 두 번 다시 사공을 부르지도 않았던 이유는 사공의 부당함에 맞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글쓴이는 추측하고 있다.

⑤ 김정희의 ‘세한도’는 한겨울 풍경을 통해 선비의 지조를 드러낸 그림인데, 이는 (다)의 제목이기도 하다. 글쓴이는 ‘임동설한’에도 ‘꼿꼿한’ 태도를 유지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림 ‘세한도’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대상의 의미 비교하기

ⓐ는 자신을 잊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임의 모습, Ⓩ는 글쓴이, 아버지와 달리 사공이 머무는 공간이다. ④는 임을 생각하는 자신과 대비되고, ⑥는 추위에 떨고 있는 나루터의 글쓴이와 대비된다.

[오답풀이] ① ④는 화자가 임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⑥를 화자가 지향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③ ⑥에는 곧 돌아올 사공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⑥는 임의 상황을 표현한 시어로, 화자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적 태도라 볼 수 없다.

[38~42] 독서(사회)

<출전> 공공 선택 이론(제구성)

개관: 이 글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의사를 집단의 의사로 통합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으로 공공 선택 이론을 다룬다.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절수 투표제, 보르다(Borda) 투표제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른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설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절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절수를 주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대안들에 대해 주어진 절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로서, 합산 절수가 많은 대안이 선택된다. 소수의 의견도 잘 반영되며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결과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르다 투표제는 대안의 수를 기준으로 절수를 부여하여 가장 높은 절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한다.

38.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보르다 투표제(5문단)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점에서 시작해서 차례 대로 n-1점, n-2점으로 절수를 부여하여 최하 1점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부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투표의 전략적 행위는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태도로서, 4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투표제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대안이 채택이 되

면 이로 인해 채택이 되지 않은 안건을 지지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④ 4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수 투표제는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된다.

⑤ 단순 과반수제는 안건 통과의 기준은 몇 가지 대안이든 과반수를 얻는 안이 통과된다. 이에 반해 최적 다수결제에서는 투표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그러므로 안건에 따라 안건 통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3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한다면, 같은 학교, 읊은 학교, 병은 경찰서를 택할 것이므로, 다수결로 보면 학교가 두 표를 얻어 먼저 채택이 될 것이다. 이후에는 학교와 병원이 최종 투표에 부쳐지는데, 같은 병원, 읊은 학교, 병은 병원에 투표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대안으로는 두 표를 얻어 병원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학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한다면 같은 병원, 읊은 학교, 병은 병원을 투표할 것이므로, 병원이 채택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최종 결정을 위해 투표한다면 병원과 경찰서의 다수결 승자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 (같은 병원, 읊은 경찰서, 병은 경찰서를 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경찰서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결정된다.)

③ 투표의 역설이란 개념은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결과가 달라지므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

④ 동시에 세 안건을 투표에 부치면 세 사람이 병원, 학교, 경찰서에 각 한 표씩 투표하게 되어 세 안건 중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⑤ 읊, 병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 최종 투표 결과는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40.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5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수에 의해 중도의 대안으로 부여된 점수들의 합산 점수보다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들의 합산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투표자는 중도의 대안에 관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에 관해서도 점수를 배분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③ 점수 투표제에서도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이 드러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최적 다수결제에 따르면 ②는 외부 비용이고, ③는 의사 결정 비용이다. ④는 A와 B의 곡선을 합한 총비용을 의미하며 U자 형태로 나타난다. n은 ②와 ③의 교차점으로서 최적 다수 지점을 가리킨다. 이는 총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다. 그런데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의사 결정 비용은 증가하고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②와 ④는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④는 이동하지만 ②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는 외부 비용을 나타낸다. 이는 안

건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므로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부 비용은 낮아지고, 반대표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값이 커진다.

② ④는 의사 결정 비용으로, 이는 투표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투표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③ ④는 총비용이다. n은 ②와 ④를 합한 값이 최소화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은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④ 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④의 값은 0이 된다.

4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는 대안 I, II, III에 대해 투표자 A~E의 선호 강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 안건들을 ①(단순 과반수제), ②(점수 투표제), ③(보르다 투표제)으로 투표에 부칠 때 각각의 경우에 채택될 대안이 무엇일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참고로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찬반 투표의 결과에는 개개인의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기>와 같이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개인 선호 강도가 있을 수 있다.

⑦은 단순히 과반수가 되면 채택되는데, 선호 강도에 따라 투표하면 II은 B, C, E가 지지하고, III은 A, D가 지지한다. I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없다. 따라서 ⑦에서는 대안 II가 선택된다.

⑧은 각 투표자가 선호에 따라 대안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므로, 현재의 선호 강도에 따라 부여한 점수를 합산해 보면 II가 21점, III이 20점, I이 9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II가 채택된다.

⑨은 선호 순서대로 n점, n-1점, n-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이 채택된다. n은 대안의 개수이므로 3이 된다. 그러면 A의 경우 선호 강도가 가장 높은 III에 3점, I에 2점, II에 1점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E가 점수를 부여하면 합산 점수는 I은 7점, II는 11점, III은 12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III이 채택된다.

[43~45] 문학(현대시)

<출전> (가) 윤동주, 「소년(少年)」 / (나) 손택수, 「나무의 꿈」

개관: (가)는 시어의 연쇄적 반복을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산문시로서, 계절과 관련된 감각적 이미지 사용을 통해 ‘순이’에 대한 ‘소년’의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에서 화자는 의인화된 ‘나무’에 대해 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 꿈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그 꿈과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존재 가치가 있음을 따뜻한 어조로 일깨워 주고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단풍잎’, ‘하늘’, ‘파란 물감’, ‘손바닥’, ‘맑은 강물’이라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하였고, (나)에서는 ‘계단’, ‘창문’, ‘바다’라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

② (가)는 ‘-느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나)에서 ‘-니’, ‘-구나’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에서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 (나)에서 시적 대상인 ‘나무’를 ‘너’라는 의인화된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⑤ (나)에서 화자의 시선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⑦을 통해 ‘소년’의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확인한다. ⑧은 화자가 ‘너’가 지향할 것이라고 가정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 ⑦은 ‘소년’이 거부하는 세계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는 아니다.

④, ⑤ ⑦은 현재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이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의적 줄거je에 따라 감상하기

(나)의 ‘의자’, ‘책상’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줌 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듣다’는 것을 통해 자연물인 하늘과 점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소년’은 ‘맑은 강물’ 속에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맑은 강물’에는 현재 부재하는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장작’이 한 줌 채가 된 것은 ‘너’의 ‘꿈’이 좌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몸을 데워’ 준다는 것은 새롭게 발견한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존재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의 ‘바람 소리’는 ‘너’가 ‘지금 바람을 만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음과 이어지므로, ‘너’의 현재 상황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